

광양시 내년 신규사업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3295억 추진 중인 현안사업 93건 1135억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획기적 계기 마련

광양시가 2020년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 93건 등을 포함한 93건 1135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3295억원에 달한다.

주요 반영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 1900억원을 비롯해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386억원, 세풍산단-광양역 연결도로 개설 320억원, 세풍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295억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정비사업 331억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195억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원 등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 가능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0년 확보한 국비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확보한 정부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 5억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세풍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환경부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 등 광양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의 경우 여수 광양항을 이용하는 울촌-해룡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제3·4 항만에정지와 연계 강화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울촌

산단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수송거리(16km→2.1km) 단축하는 것은 물론 광양항 내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생활SOC시설에 반영된 국비는 중동 가족센터 12억원,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20억원,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12억원,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사업 10억원이다.

또 광양 중마수영장 건립 16억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 4억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원, 봉강 하조, 옥룡 죽림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원 등이 반영돼 연차별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양-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지구) 29억원 등 계속사업을 포함해 2020년 군특 사업에 총 26건 161억원도 반영됐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건립사업 40억원(국비 20억원)'이 신규 반영돼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

으며 중마 공공도서관 증·개축사업 10억원(국비 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영동 65억원, 옥곡면 84억원, 진상면 58억원, 진월면 58억원, 옥룡면 60억원, 봉강면 39억원, 다압면 38억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60억원(국비 111억원)이 반영돼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활 안전 및 환경분야 예산으로 다압(하천, 섬진, 도사), 옥곡(명주, 백암), 태인(장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6건 253억원(국비 10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과감하게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LF스캐어 입점 등 정주기반 시설은 완비된 만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돌아오는 광양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승격 30주년 맞아 내달 5일 'K-팝 슈퍼콘서트'

광양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10월5일 오후 7시 광양공설운동장에서 '2019 광양 K-팝 슈퍼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한류를 이끄는 NCT DREAM, 레드벨벳, 다비치, 열혈남아, 미소, 마스크, NTB, 엘리스 등 총 8개 팀의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광양시가 추구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광양시민과 K-팝을 사랑하는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인원을 2만명으로 한정했으며,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오는 25일부터 광양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 그룹으로 구성된 K-팝 슈퍼 콘서트를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 광양에서 개최한다"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는 물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량 풍부한 저수지 6곳에 어린 동자개 방류



지난 11일 광양주민과 단체, 공무원 등 50여명이 지역 하천에 민물도롱이류인 동자개 13만 4000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지난 11일 친환경 자연생태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동자개가 주로 서식하는 수량이 풍부한 저수지 6곳에(광양읍 2곳, 옥룡·옥곡 각 1곳, 진월면 2곳) 방류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지역주민과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어린 동자개가 훗날 풍성한 어족자원이 되어 어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3만 4000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어린 동자개는 저수지나 하천 등 자연에서 2-3년 정도 성장하여 전장 15-17cm의 크기가 되면 어린 동자개가 된다.

동자개는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조용한 밤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빠까빠까'하는 소리를 내 지역에선 일명 '빠까사리'로 불리고 있다.

시는 2004년부터 지역토산어종인 은어와 함께, 메기, 잉어, 붕어 등 약 440만 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실질적인 친환경 자연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다량의 어족자원 증가와 시민 정서함양, 어족자원 보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박성이 광양시 해양수산팀장은 "동자개 방류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은어와 함께, 뱀장어, 자라, 소가리 등 다양한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사라실 정원 숲'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2020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에 '사라실 정원 숲 조성'이 선정됐다.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 예술촌.

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

광양시는 2020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사업에 '사라실 정원 숲 조성'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 민선 6기 대표 브랜드 시책 중 하나로,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시는 마을의 유희 토지와 자투리땅 등에 숲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시

킬 계획이다.

정상범 광양시 공원녹지과장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도시 숲 조성에 주력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녹색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행복한 광양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봉강면이장협의회와 다압면이장협의회, 옥곡면 오동마을회 등 총 3곳에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 주민과 단체가 직접 참여한 숲을 조성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초남 화물차 공영차고지 165억 투입 다음달 착공

광양시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오는 10월께 착공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광양읍 초남일반산업단지 내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 공사 착공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초남제2공단 내 7필지 4만5695㎡의 보상을 올해 4월께 마무리했으며 경관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국비 100억원, 시비 65억원 등 총 165억원이 투자되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완공 후 260대의 화물차와 121대의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관리동, 정비동, 식당 등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만의 전용 시설로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양읍권 주택가 등 불법주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